

디지털 세상 속 심

디지털 세계에 둘러싸여 생활하는 현대인은 끊임없이 '심'을 추구한다. 대체로 이때의 심과 휴식은 일상을 떠나 자연으로 들어가는 데 닿아 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보면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심을 누릴 수 있다. 과연 그럴까?

발상을 전환하면 가능하다. 디지털 세계를 가까이 자연의 구성 요소로 받아들이면 도시에서도 '심'을 발견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을 자연의 일부로 상상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컴퓨터로 디자인된 소리와 빛을 매개로 초현실적 세계를 경험하는 '미디어동굴'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 338의 올해 두 번째 기획전시로 미디어아티스트 윤제호를 초대해 23일부터 6월12일까지 '휴식동굴 338'을 선보인다.

윤 작가는 공간 자체를 소리와 빛을 빌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가다. 그의 작품은 디지털사운드와 기하학 이미지를 활용한 기술적 장치가 돋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윤 작가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 거닐고 만지면서 탐색할 수 있게 작품을 기획했다. 기존의 틀에 박힌 관람과 청취 방식이 아닌 디지털 유목민인 현대인들 스스로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사유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윤 작가가 주로 쓰는 매체는 디지털 사운드와 기하학 이미지 그리고 빛. 작가는 각 요소와 이야기들을 프로젝션 맵핑기법으로 디지털 세상을 열어 보인다. 역설적으로 디지털 세상은 현대인에게 낯선 자연스러운 휴식(심)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다가온다. 작가는 빛을 이용해 동굴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가 만든 공간에 다시 소리를 더해 현실적인 이미지의 세계를 엮는다.

특히 '파동동굴#3'는 푸른 빛이 들이치는 '미디어동굴'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밝은색과 푸른색이 조화를 이룬다. 고전적인 동굴의 모습이 아닌 환상적인 이미지와 자연의 감성이 결합된 의미로 다가

광주문화재단, '미디어 338' 기획전 23일~6월12일 '휴식동굴 338'

미디어아티스트 윤제호 작가 초청 소리·빛·공간... 관람객 직접 탐색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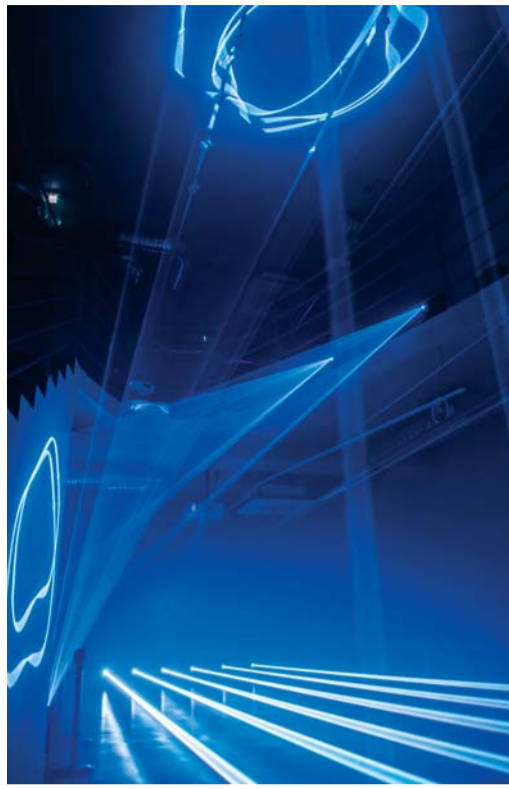
'공간에서 공간으로 for 休'는 각각 위, 아래에 비치된 설치물을 통해 '심'이라는 주제를 구현한다. 휴식과 여유는 공간과 공간이라는 일정한 거리에서 창출되며, 이러한 공간을 매개하는 것은 자연의 빛과 자연의 소리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다시 말해 미디어와 디지털로 둘러싸인 오늘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자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 작가는 "더 이상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디지털 세계를 가까이 자연의 구성 요소로 받아들인다면 도시에서도 '심'을 발견할 수 있다"며 "디지털 세상 속에서 정처 없이 부유하는 현대인에 걸맞는 '심'을 구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윤 작가는 홍익대학교 영상학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테크놀로지학과에서 공부하고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지털 디자인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미디어338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에 마련된 북중 전시 공간으로 실험적인 작품 설치 가능한 융·복합 전시 공간이다. 이번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평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일·월요일 휴무. 개막식은 23일 오후 5시부터 프리오픈으로 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9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파동동굴#3'



'공간에서공간으로 for 休'

영광 낙월도 해역 고려청자 11세기 유물 추정

문화재청,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유물 60점 수록

영광 낙월도 인근 해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지역 어민들의 유물 발견 신고가 들어왔던 지역이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12년 탐사를 시작해 2016년까지 모두 7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려 시대 청자 등 유물 30여 점을 확인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낙월도 해역의 탐사와 2018년 발굴조사 결과를 수록한 '영광 낙월도 해역 수중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신고 해양탐사, 발굴조사 내용과 출수 유물 분석 결과를 담았다.

출수된 유물은 자기류와 도기를 포함하여 모두 100여 점으로, 해양문화재연구소는 형태가 비교적 완전한 것을 중심으로 60점을 보고서에 수록했다. 유물 가운데는 청자가 총 49점이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청자점시는 그 종류와 형태가 해남의 신덕리 가마터 출토품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작 시기는 11세기로 추정된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발굴조사 내용과 유물에 관한 연구 등을 분석한 결과도 수록돼 있어 향후 낙월도 인근해역에서 진행될 조사와 유물들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보고서는 전국의 박물관, 대학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된다. 또한 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에도 공개해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수중문화유산 조사·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활발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해양문화유산 연구에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극단 나상만 예술감독 취임 1년

"연극인들과 소통, 시립극단 정상화 노력할 것"

광주시립극단 나상만(62) 예술감독이 지난 1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나 감독은 2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1년 동안의 소회와 광주시립극단이 나아갈 길을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극단에 연극교육·창조방법론을 체계화한 '스타니스랍스키'의 연기론을 접목했다"며 "모든 배우 캐스팅을 오디션 통해 진행하고 연습 시간을 철저히 맞추는 등 '원칙'을 지켰다"고 회고했다.

나 감독은 취임 후 "나의 살던 고향", "명키열전", "달빛 결혼식" 3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선보인 연극 '달빛 결혼식'은 지난 1987년 나 감독이 쓴 '우털은 하난기라'를 각색한 작품으로, 지역 감정과 차별을 넘어 화합과 광주정신의 예술적 승화를 취지로 내걸었다. 그러나 영·호남 30년 전 시대상을 답습한 데다 오늘의 시각을 반영하는 대사와 소품이 없어 전반적으로 단조로웠다는 평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 감독은 상임단원제 확립을 강조했다. 일정한 기간 배우들을 상임단원으로 고용해 연극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다. 물론 눈에 띄는 괄목한 성과는 없었지만 점차 인식의 변화가 이

루어지고 있다는 자평이다.

아울러 나 감독은 역량 있는 배우의 부족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지역 연출가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통해 소품 위주로 2-3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그는 "광주시립극단이 발전하기 위해선 광주연극인들과 광주시가 쌍방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남은 1년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광주연극의 부흥과 시립극단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 감독은 연극 '명키열전'을 오는 9월 6-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러시아 국립 슈우킨 연극대학 창설 100주년 기념공연으로 기획된 이 작품은 세계 문학작품 속 원숭이들을 모아 아크로바틱, 무술 등을 통해 인간의 꿈과 상상의 이야기를 풀어낼 계획이다. 문의 062-511-2759.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겨르로이 상상'

빛고을 무용가야금연주단 23일 연주회

빛고을 무용가야금연주단이 오는 23일 오후 7시 빛고을 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정기연주회 '겨르로이 상상'을 연다.

'겨르로이'는 '한가로이, 겨울 있께'라는 의미의 순우리말이다.

광주시 서구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611번째를 맞는 상설공연 '목요열린국악한마당'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이날 공연은 김죽파의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로 첫 문을 연다. 일반적인 가야금 산조 음계가 아닌 불교 법배 음계를 기반으로 신라시대 무용곡을 표현한 황병기의 12현 가야금 곡 '침향무', 15현 가



빛고을 무용가야금연주단

야금·철 가야금 등 개량 가야금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성금연의 '17현 가야금 흥'도 선보인다. 이어 가야금병창 '심정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 25현 가야금곡인 '출강'과 '울산 아가씨' 등으로 무대를 채운다.

'빛고을 무용가야금연주단'은 1992년 창단, 매년 정기연주회 및 초청연주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공연을 열고 있다.

전석 무료. 문의 062-350-4557, 010-5601-8759.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